

**환경의미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방법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Semiotic Approach on Environmental Meaning

김주미*/Kim, Joo-Mi

Abstract

Architectural environment in this study means a language and meaning complex which makes communica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environment possi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emiotic approach to analyze and examine meaning, as a semiotic system, and its effects, focusing on the generative mean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academic status of modern semiotics in postmodernism and the possibility of its being metalanguage for a study of a variety of cultural phenomena and design. It also provides two viewpoints as propositions for its analysis: it explains the necessity of environmental-discursive attitude and social-semiotic viewpoint which understands environment as social-cultural

reflectors. Finally, it provides framework and all the interpretative procedures for analysis of environmental meanings on the basis of the approach of semiotics of space. By applying the methods proposed this study to the case studies, it also proves validity of this approach and the potentialities of the application of semiotics.

This study emphasizes not only denotative configuration of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but also its connotative meanings. It maintains that designers, architects, and theorists should realize correctly today's changed value system and social and aesthetic paradigms. It also stresses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the new architectural language and meaning system.

키워드 : 환경의미, 기호학, 환경답론

1. 서론

도시·건축환경은 인간-환경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하는 언어, 매개체로서 존재한다. 환경의 형태와 패턴은 어떠한 의미를 인간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그 환경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건축적 패러다임이 결합되어 가시화된 특별한 문화적 형태로 인식할 수 있다. 고도기술, 소비자본주의, 정보화 사회속에서 인간은 새로운 적응능력을 위한 지식과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상력, 자율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언어와 의미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생활형식과 그 형식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현실화되어진 물질문화는 다양한 기호체계를 함의하고 있으며 긍정적, 부정적이든 인간에게 커다란 작용력으로 다가서고 있다. 디자인학 연구에 있어 의미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며 더욱 더 체계적인 연구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의미 environmental meaning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nonverbal communication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연구

는 기호학 semiotics¹⁾과 환경심리학 environmental psychology에 의한 접근방법이 있으나 최근 생태학적 접근 ecological approach 방법이 추가됨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효과에 기여하고 있다.²⁾ 본 연구는 공간기호학적^{3), 4)} 관점에 기초하여 환경의미와 구조 그리고 인간-환경 상호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의미작용 signification에 관한 것으로 기호학이론과 새로운 관점들을 일차적으로 제안하고 환경의미의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1) H. Parret, 현대기호학의 흐름, 김성도 역, 서울: 이론과 실천, 1995, p.25. 영어로 기호학을 지칭하기 위해 쓰이는 semiotics나 프랑스어의 sémiologie는 모두 기호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sèmeion*에서 형성된 조어들이다. 기호학 la sémiologie과 기호론 la sémiotique은 단지 두용어의 암시적 의미에 있어서만 차이가 날 뿐이다. 소쉬르가 만든 '세미올로지'란 술어는 보다 문학적이며, 이데올로기 차원의 전반적인 비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반면, '세미오티크'는 주로 영미계통의 전통에서, 또 프랑스에서는 후기 엘름슬레우의 사조에서 사용되는 술어로서 '과학적이며 통합적인 기획'이라는 관념을 암시적으로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semiotics'를 기호학으로 칭하기로 하겠다.

2) M. Krampen, "Environmental Meaning", in E. H. Zube & G. T. Moore Ed., Advance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 vol.3, N.Y. : Plenum Press, 1991, pp.231~246 참조.

* 정희원, 원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

** 이 논문은 96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기호학은 인간의 소통 및 소통과 공존하는 의미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대상은 소통하는 인간주체들의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적, 예술적 생산속에 발현되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호학은 예술학, 미학, 건축이론, 디자인 이론에 대한 메타언어로 구축될 수 있으며 방법론만이 아닌 하나의 관점으로 관점에 의해서 암시되는 체계적 인식은 방법론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기호학자 그레마스 A. J. Greimas는 기호학을 의미 일반에 관한 이론으로 의미 파악과 생성의 모든 조건을 일관된 상위언어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호와 기호체계라는 개념은 불가분 의미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기호학에서 의미는 기호가 갖는 특성 property으로서 환경의미에 대한 연구는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 기호학 연구에서 의미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내에서 전달되어지는 메세지이며 환경은 의미의 운반체 carries of meaning, 즉 미디움 medium이다. 또한 환경 그 자체에는 목적과 기능이 있으며 그 의미를 운반하기 위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의미의 이해는 그 구조의 관계를 규명하고 어떻게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생산 가능한가를 밝힘으로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환경디자인은 의미화에 관한 것으로 주로 그 의미의 생산과 창조에 관한 절차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환경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활동의 효과적 전개에 필요한 지식과 의미를 지원해 주는 내용일 때 비로소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다. 그 가치는 문화를 이루고 있는 일련의 가치와 믿음, 대중 그리고 이상을 구현하려는 디자이너, 건축가들의 세계관에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디자이너가 갖는 조형, 공간언어는 실체를 구성하기 위한 스스로의 의도, 의지, 감정, 철학의 전달수단으로서 환경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디자인은 사회문화적 요구의 반영 그리고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응하여 디자이너 스스로의 내재적 조형언어를 외연적인 형태로 조직화하는 행위이다. 환경이 특별한 전달수단, 특수한 방식으로 조직화된 언어라고 할 때 그 메세지는 텍스트 text로 보여질 수 있다. 또한 공간언어는 자연언어와 마찬가지로 그 어휘들을 구성하는 어떤 규칙과 계층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규칙, 문법이 없으면 언어가 있을 수 없듯이 환경도 구조와 의미의 상호관계 속에 존재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체계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

기호학적 접근방법의 본질은 의미의 의미, 전달행위의 본질과 그 사회적 역할이라는 문제들에서 구체화 된다. 의미는 기호학을 이용하는 모든 과학에 기본적인 문제이며, 어떤 기호를 연구하는 목표는 그 내용을 정의하고 그 의미효과를 발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환경을 기호체계로 규정하고 그 기호가 발현하는 의미와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호학적 접근방법을 체계화하여 제안하기로 하겠다.

2. 기호학의 기본 이론

2-1. 기호학의 위상

현대기호학은 스위스 언어학자, 소쉬르 Ferdinand de Saussure(1857-1913)에 의한 유럽식 기호학 sémiologie과 미국 철학자, 퍼스 Charles S. Peirce(1839-1914)에 의한 미국전통의 기호학(론) semiotics의 두 학문적 배경에 기초하고 있다.⁵⁾ 기호의 존재를 인식하고 상이한 기호들의 유형, 구조, 속성, 기능 등을 연구하는 하나의 기호 과학의 가능성을 갖고 정신과학으로서 명명한 것은 20세기 초의 일이다. 소쉬르에 있어서 기호학은 기호를 다루는 일반학문이며 언어학은 기호학의 한 분과 학문에 해당된다. 소쉬르가 언어를 기호체계로 간파하고 기호자체에 관한 학문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음이 지적된 후로 이 기호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즉 기호학의 연구가 발전을 이루게 된다.

기호학 즉 경험과학으로서 기호학이나 넓은 뜻의 기호학 즉 언어철학의 핵심적인 문제는 의미를 결정하고 해명하는 데 있다.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작용 signification을 일으킬 수 있느냐하는 개연성 probability을 명료화하는 것이다.⁶⁾ 과학으로서의 기호학의 경우, 기호학은 주로 통사론 syntaxics, 의미론 semantics, 화용론 pragmatics의 세 차원에서 시행된다.⁷⁾ 기호학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언어, 기호의 유통에 기초하여 그 현상을 분석, 재구성함으로써 기호적 의미가 어떻게 생성, 표현, 수용되는지를 확인하고, 과학철학, 예술, 일상생활, 의식, 예절, 디자인 등의 분야에 따라 각기 어떻게 특수한 기능을 하

3)A. J. Greimas, *Narrative Semiotics and Cognitive Discourse*, London : Pinter Publishers, 1990, pp.139~159 참조. 프랑스의 기호학자 그레마스는 공간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에서 과학적 형식과 기호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자는 공간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대립적 속성들을 분절하여 그것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며, 후자는 불연속적인 의미작용을 발견하기 위해 시도되어지는 형식이다. 그는 공간에 대한 이러한 수학적이고 기호학적인 두 가지의 위상학을 topologies을 통합하여 공간기호학 대신에 이를 위상학적 기호학 topological semiotics이라고 명명하고 도시, 정주공간, 건축 등 다양한 특수 기호학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건축·실내환경을 위상학적 기호학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공간기호학 semiotics of space으로 통합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4)M. Krampen, 1991, p.234. 건축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호학적 관심은 무카로보스키 Jean Mukarovsky가 쓴 [건축의 기능에 관한 문제] (1937~1938)의 글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그는 건축 의미의 다기능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1950년 이후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미관

의 악화와 거대한 막스의 건물들이 도시를 점유하면서 환경의미에 대한 연구와 함께 건축적, 도시적 실제에 기호학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소쉬르 Saussure, 퍼스 Peirce, 모리스 Morris, 엘름슬레우 Hjelmslev, 그레마스 Greimas, 촘스키 Chomsky, 브로드벤트 Broadbent, 에코 Eco 등의 언어학적 연구에 의해 제안되어진 다양한 기호학적 모델과 접근방법이 건축기호학에 적용되고 있다.

5)S. Hervey, *Semiotic Perspectiv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82, p.9.

6)H. Parret, 1995, pp.14~24.

7)미국의 기호학자 모리스 Charles Morris는 기호학연구를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으로 구분하였다. 넓은 의미의 논리학의 기초로서 기호론을 기호과정 semiosis(어떤 것이 기호로 작용하는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기호의 과학'으로 설명한다. 통사론은 통사구조를 분석하여 그 구성방법과 각 성분 사이에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즉 기호들끼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의미론은 어떤 요소가 표현하거나 지시하는 개념, 규범, 태도 등과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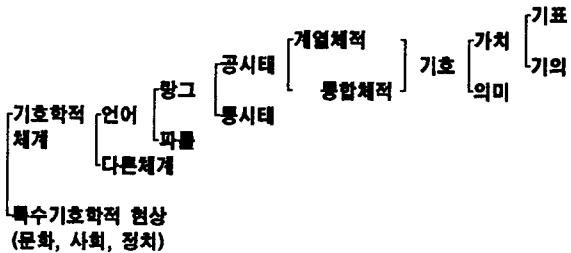
는가를 밝히는데 있다.⁸⁾ 오늘날 기호학은 기호이론의 적용과 그 이론의 철학적 배경에 관한 내용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기호이론의 철학적, 의미론적인 기본가설들 사이의 관계성은 해체주의 Deconstructionism나 정신분석 psychoanalysis과 같은 이론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대상언어 object language와 그것의 도구, 즉 대상언어를 기술, 설명하기 위한 언어로서의 메타언어 metalanguage와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이다.⁹⁾

기호학의 대상은 자연언어 natural language만이 아니라 인간이 여러 차원 및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호학이 현대 철학의 한 방법론에 대한 메타언어로서 구축될 수 있으며 인간 삶을 의미가 스며있는 공간이라고 볼 때 기호학은 곧 의미가 발현되는 곳 어디에서나 성립된다. 이제 기호학은 학제적인 학문의 분야 a field이라기 보다는 인간과 인간이 생성한 담론 및 문화적 산물들을 대상으로 삼는 일체의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인식론적 평가력을 갖는 하나의 초학문 transdiscipline의 방법이 될 수 있다.¹⁰⁾

2-2. 기호학적 체계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의 존재와 그 객관적 법칙에서 출발하여 세계와 정신을 하나의 구조의 유사법칙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구조론적, 구조주의적 structural은 인간의 언어활동과 기호속에서 의미를 발현, 생산하는 모든 배열관계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기호체계야말로 구조주의의 과학적, 철학적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으며 기호체계의 법칙과 규칙이 구조주의의 생명이다. 구조의 인식없는 개념의 인식은 과학이 아니고 단지 추상적 이데올로기야 이용되거나 거기에 그치고 만다.¹¹⁾ 구조는 관계의 그물 속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며 의미의 표상은 체계없이 구성되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소쉬르에 의한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기호학적 체계와 기호구조에 대한 중요한

〈표 1〉 소쉬르의 기호학적 체계와 기호구조



된 것으로 기호들과 사물들간의 관계에서의 의미규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화용론은 기호들과 그 사용자들의 관계로 어떤 기호가 어떤 해석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즉 어용적 규칙을 분석 기술하는 것이다.

8)박이문, 기호와 의미 : 현대사회와 기호 . 기호학연구 2집,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pp.14~15.

9)A. J. Greimas, 1990, p.vi.

10)H. Parret, 1995, p.78.

11)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서울: 인간사랑, 1989, p.488, 491.

12)R. Hodge, G. Kress, Social Semiotics, N. Y.: Cornell Univ. Press, 1988, pp.17~18.

기본개념들을 이분법적 dichotomic 구분을 통해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¹²⁾

기호학적 체계에서 언어활동 language은 랑그(언어) langue와 파롤(말) parole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어는 객관화된 사회적 측면을 가르킨다. 사회적 제도로서 언어는 관념을 표현하는 기호의 조직화된 체계이다. 그와 반면에 말은 언어의 객관화된 제도안에서 개인이 어느 정도 자유를 갖고 표현하는 개성있는 언어활동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어학은 말보다도 그 말을 지배하는 언어체계의 법칙을 연구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소쉬르는 언어연구에 대한 공시적 共時的 synchronic(일정시기의 언어의 한 단계), 통시적 通時의 diachronic(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 연구중에 공시태 synchrony만을 취한다. 이것은 하나의 현상적 가치를 그것과 동시에 현존 presence하는 다른 현상들과의 관계에 입각해서 언어를 연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공시성은 언어가 갖는 연상적, 잠재적인 측면으로서 수직적인 선택 selection의 면과 수평적인 결합 combination의 면으로 구분된다.(1953년 소쉬르의 제자인 덴마크의 언어학자 엘름 슬레우 Louis Hjelmslev에 의해 선택은 계열체적 paradigmatic 축으로 결합은 통합체적 syntagmatic 축¹³⁾으로 명명됨) 기호체계는 이 두 축의 관계체계로 구성되었으며, 가치 value의 문제를 다루는 과학으로서 기호학은 이들의 가치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가 없다. 따라서 기호학 분야에서 이러한 두 관계체계에 대한 분류와 범주화는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공시언어학 synchronic linguistics에서는 기호 signs를 가치(체계와 구조, 계열체와 통합체 안에서의 장소 a place)와 의미작용 signification(언어 이면에 존재하는 준거의 관계 a relation of reference)의 구조로 설명한다. 위 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기호구조는 두 가지의 가치체계 즉, 기의 signified(개념이나 의미)와 기표 signifier(의미의 운반체)의 두 형식들 forms로 형성되어 있으며 의미작용은 곧 기호가치의 양측면인 기의와 기표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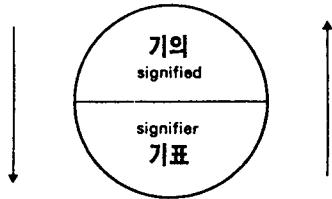
2-3. 기호체계와 의미

소쉬르는 「일반언어학강의」(1916)에서 기호를 심리적 실재로서,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청각적 이미지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소쉬르는 기호의 개념적 측면 conceptual aspect을 기의 記意 signified(signifie), 물리적 표현 physical manifestation을 기표 記記 signifier(signifier)로 구분하고 있다.

13)Ibid, p.17 ; 김형효, 1989, pp.65~71 ; Jean-Marie Floch, 조형기호학, 박인철 역, 서울: 한길사, 1994, p.37 참조. 구조언어학에서 언어구성 요소 자체보다는 그 요소들의 관계적 구조를 강조하고 두 가지 유형의 계열체적 통합체적 관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수평축인 통합체적 축은 공존하는 사항간의 관계를 발하며 수직적인 계열체적 축은 시간성의 개념아래 전화하는 사항간의 관계체계를 뜻한다. 통합체적 관계들은 계열체적 변화 요소와 함께 위치하고 있다. 통합체적 분석은 텍스트를 연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명시적 의미를 보여주게 되고, 계열체적 분석은 텍스트 내면에서 의미를 발생시키는 숨겨진 패턴과 구조를 찾는 것으로 함축적 의미를 보여주게 된다. 계열체적 관계는 수직축, 시간성, 전화적, 통시적 通時의 측면, 부재 不在의 계열, 잠재적, 의미론적 semantic 구조 관계를 의미한다. 통합체적 관계는 수평축, 동시성, 정태적, 공시적 共時의 측면, 현존 現存의 계열, 명시적, 통사론적 syntactic 구조 관계를 의미한다.

표 signifier (signifiant)라고 언급한다. 실제의 현상세계를 하나의 체계로 규정하고 그 내면에는 일정한 형식, 규칙, 패턴의 내재적 구조가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소쉬르는 기의와 기표 서로의 연상적 관계를 강조하였고 기호의 이러한 양면은 동전의 앞뒤면과 유사한 것으로 상호 연관을 의미하는 관계로 보았으며 <표 2>와 같이 기호의 내재적 구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제안하고 있다.¹⁴⁾

<표 2> 소쉬르에 의한 기호체계



소쉬르는 구조 그대신 언어가 구성되는 내부법칙(내재적 구성)을 가르켜 체계라고 불렀으며 체계는 전체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tout se tient'라고 설명한다. 전체 체계에서 서로 다른 형식들의 상호공존 co-existence에 있어 어떤 형식의 대립 opposition은 곧 차이 differences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한 형식의 정체성 identity은 서로 다른 형식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고 정의되어진다. 모든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 형식의 존재를 가치 value라고 할 때 그 가치는 전체 체계내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다른 형태의 가치에 의해서 나타나고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소쉬르는 언어에 있어 '의미란 오로지 차이성을 통해서 존재한다. il n'y a de sens que par différences'라고 언명하였다. 이는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차이점들이라는 뜻이며 의미의 실체 entity는 대립에 의한 차이의 연결망에 의해서 그 정체가 드러남을 뜻한다.¹⁵⁾ 이러한 변별적 차이 distinctive differences의 개념은 구조주의의 사유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추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한 언어 체계안에서 각 형태소 morpheme나 음소 phoneme의 단위들은 그 것들의 다른 단위들과 맺는 관계아래서만 정의된다. 서로 관여하고 있는 대립이나 그 대립이 넣는 변별적 차이가 없이 언어적 사실의 본질이 나타날 수 없다. 소쉬르는 기호가치를 그것이 다른 단위들과의 관계(예를 들어 화폐가치에서 1000원이란 500원과 5000원 사이에 끼는 위치)에서 맺어지는 위치 position의 소산으로 설명한다. 하나의 가치는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위상적 位相의 topological 개념¹⁶⁾으로 의미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위치와 위상과 관련한 의미일 뿐이다.¹⁷⁾

기호학적체계에서 소쉬르는 자의적 arbitrary 기호를 매개해서 커

뮤니케이션이 성립될 수 있는 관계체계의 구축에 관심을 갖는다. 소쉬르는 랑그와 괴불의 구분에 이어 기의와 기표를 <표 3>과 같이 각각 형식 form(추상적 개념)과 실질 substance(구체적 현상)의 이분법으로 구분한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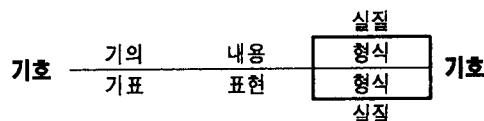
<표 3> 형식과 실질의 개념

형식 form	실질 substance
추상적 실체 abstract entities	구체적 현상 concrete phenomena
일반성 generality	특수성 speciality
비가시적 invisible	가시적 visible
하나 single	다수 multiple
류 genus	종 species
공통되는 성질 common quality	다양한 대상과 사건 variable objects and events

소쉬르의 가르침으로부터 출발한 엘름슬레우는 구조주의 언어학을 발전시킨 사람으로 소쉬르가 제안했던 기의와 기표의 두면을 각각 내용 content과 표현 expression으로 다시 대치시키고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그 두면은 각각 형식과 실질로 다시 분절된다.¹⁹⁾

<표 4> 엘름슬레우에 의한 기호의 재구성



커뮤니케이션은 메세지 전달과정으로서 발신자에 의해 전달되어지는 메세지 message(내용)는 수신자에게 일종의 시그널 signal(표현)로 나타난다. 기호체계내에서 작용되어지는 특별한 형식들 forms의 결합을 통해 기호작용이 이루어지며 그러한 형식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기호는 내용과 표현의 실질들을 매개하는 매개자 mediator로서 존재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기호는 내용면과 표현면이 갖는 실질들이 아니라 그 심층에 깔려있는, 즉 내포되어있는 형식들의 결합에 의해서 의미가 발현되는 것이다.²⁰⁾ 소쉬르, 엘름슬레우에 의한 이러한 기호학 이론은 그레마스 Algirdas Julien Greimas를 중심으로 한 파리학파 등, 기호학 연구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문학텍스트 및 다양한 문화현상의 의미분석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2-4. 기호학적 방법

기호가 기의와 기표의 결합이라고 정의되므로 의미작용은 더이상 사물에 대한 기호의 관계(대상지시적 기능)에만 달려 있지 않다.

학에서는 수학용어인 이 개념을 이용하여 기호체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기하학은 공간인식의 내용이며 공간자체의 구조를 합축적으로 제시하는 틀이다.

17) 김형호, 1989, pp.66~68 참조.

18) S. Hervey, p.13.

19) M. Gottdiener, Postmodern Semiotics,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1995, p.27.

20) S. Hervey, 1982, p.13.

14) S. Hervey, 1982, pp.14~15.

15) ibid, pp.10~12.

16) 토포스 topos(위치)와 로고스 logos가 결합된 것으로 1847년 리스팅 J.B.Listing에 의해 기초적 연구가 수행됐으며 프랑스의 수학자, 푸앙카레 H.Poincaré(1854~1912)에 의해 체계적 학문으로 이름되었다. 일 반적으로 수학에서 위상기하학으로 불리우며 공간속의 점, 선, 면 및 위치 등에 관한 것으로 양이나 크기와는 별개로 위치와 형상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도형의 성질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구조주의기호

기호학적 분석은 기의와 기표, 두양면 사이의 분절 양상을 규명함으로써 그 분석 대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호학은 기호의 세계를 관계들의 그물망으로 규정하며 의미의 존재방식에 대한 일체의 적절한 이해는 의미 존재를 구속하는 관계망을 재구성하는데 달려 있다. 기호학 방법의 특수성은 그 대상의 관계성 구축과 의미를 발현하는 내적인 속성들에 종속되기 때문에 심층성의 정체 파악을 위해 기술적 전환 ²¹⁾ 을 수행하는 것에 있다. ²²⁾ 다시 말해 기호학의 목표를 공식화 하기 위해 의미 형식의 배치를 위해 유형을 작성하고 그 관계들을 위상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의미작용의 역동성을 규정하기 위한 형식화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들로 이루어진다.

첫째, 기의와 기표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유형의 의도성을 이해해야 한다. 즉, 기호학적 담론을 위한 문제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관계망 구축을 위한 의미의 분절 articulation을 행해야 한다. 의미생성의 분절구조는 대립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장소로서 이원적 대립 binary opposition에 기초한다. 특히 구조주의적 관찰 방식은 하나의 범주가 포함하는 긍정항/부정항, 전체/부분 등 모두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며 대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중요하다.

셋째, 분절은 동시에 차이성과 관계의 배치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주제적 모티프 motif들을 어휘화하고 단순히 직선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닌 대립적 관계구조에 의한 위상적인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상적인 기의와 기표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닌 불확실성과 비결정성을 의미작용으로 하여금 견지하도록 함으로서 새로운 의미의 생성과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넷째, 이러한 의미파악과 생성의 모든 조건들, 즉 관계체계 구축 후에는 그 의미를 설명 할 수 있는 메타언어, 즉 상위언어를 확보하여 명시하는 일이다. ²³⁾

위와 같은 기호학적 방법은 분절을 통한 기호들의 내재적 관계체계 구축과 그것들의 위상적 배치와 범주화에 이르는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변형과 전환을 통한 내부적 구조화의 실현에 따라 기호학의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는 것이다.

3. 환경의미 분석을 위한 기본관점

3-1. 환경담론적 관점

1) 환경담론의 개념

공간기호학 semiotics of space에서 도시, 건축환경은 인간-환경 man-environment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존재하며 하나의 기호-상징체계로 간주된다. 기호체계로서 공간은 환경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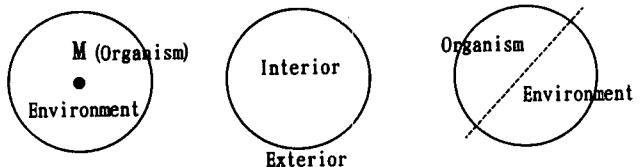
21) Ibid, pp.9~10. 가치있는 과학적 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변수가 존재하는 관찰가능하고 경험적인 구체적 현상속에서 기능, 형태의 항상성 constancy과 규칙성 regularity의 측면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현상을 가상의 추상적 실체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표현을 이루고 있는 실질들을 개념과 의미의 형식으로 대치시키는 행위이다.

22) H. Parret, 1995, p.61.77 참조.

23) Ibid, pp.56~77 참조.

environmental discourse ²⁴⁾ 의 대상이 되며 기호학연구에 담론²⁵⁾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더 큰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된다. ²⁶⁾

ED은 M-E 또는 주체-객체(대상) subject-object 사이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관계성에 근거한 환경이란 현상을 설명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다. ²⁷⁾ 관계성이란 환경구조의 내용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지칭한다. ED에서는 M-E을 중심구조로 취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M-E은 복잡한 관계적 개념들로 구성되어진 문제의 틀, 즉 프라블러매티ック problematic으로 설명된다. 프라블러매티크이라는 용어는 '문제형성체계 the system of formulating problem'로서 이론적, 개념적 구조를 의미한다. ²⁸⁾ 프라블러매티크은 한 분야나 체계, 주제를 규정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진 이론적 조건들로서 M-E의 관계속에 위치할 때만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ED은 프라블러매티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²⁹⁾ 환경이란 용어는 부정확하고 모호하여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개념으로 물리적, 사회적 세계뿐만 아니라 관념의 세계까지도 포함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ED에서 환경은 하나의 관점에 의해 통합되어진 위계적인 복잡성의 각 수준과 함께 조직화된 '커뮤니케이션의 한 체계'로 정의 내릴 수 있다. ³⁰⁾ 따라서 환경은 개념화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준거의틀 a frame of reference'이라는 의미, 또는 유기체 organism를 물리적으로 둘러싸고 surrounding 있는 주위에 대한 준거의 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도식화된 M-E관계는 어느정도의 개념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주로 M-E, 내부-외부 interior-exterior, 안-밖 in-out, 그릇-내용 container-content의 관계로 설명되며, 환경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거주지 habitat 또는 컨텍스트 context로서 개념화된다. 여기에서 원형은 물리적으로도 가능한 M-E의 관계성을

24) 환경담론 environmental discourse은 이하 ED로, 인간-환경 man-environment은 이하 M-E로 약함.

25) D. Macdonell, 담론이란 무엇인가, 임상훈 역,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2, pp.11~16. 의미를 지시하거나 의미를 가지는 모든 것은 담론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담론은 문제에 완전한 정의를 제공해 주는 일반 이론으로 기여하기 보다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언어 사용의 한 특정분야인 담론은 그 대상(객체)과 담론을 이끄는 화자(주체)의 상대적 위치, 상황, 세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대화가 담론의 기본조건이다. 따라서 담론은 어떤 진술이나 행동의 규범적 타당성을 주제로한 즉 가치체계를 세우기 위한 대화를 의미한다.

26) N. Teymur, Environmental Discourse, London : Blackwell Press, 1982,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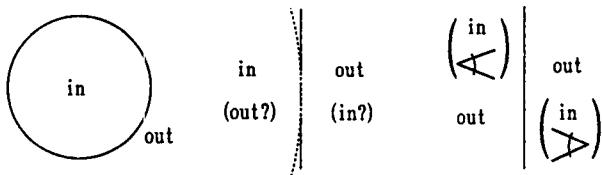
27) Ibid, pp.18~20, 36~37.

28) Ibid, pp.19~20.

29) Ibid, p.18.

30) Ibid, p.45 재인용.

보여준다. 따라서 환경이 세계, 자연, 운동장, 건물, 거실, 방, 감옥으로 대체되더라도 이러한 M-E관계의 도표는 적용가능한 것이다.³¹⁾



위와 같은 M-E의 대립적 개념들은 어떠한 전체 wholes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원래는 통합된 하나 또는 상보적관계를 의미한다. M-E관계에 대한 인식론적인 구조에서 대립개념은 상상적 경계 imaginary boundary이지 실제 경계 real boundary가 아니다. ED에서 주체-객체의 경계는 가상적일 뿐이며, 마찬가지로 안-밖의 관계도 보는 시점에 따라 상대적이다.³²⁾

환경디자인 영역에서 도시, 건축, 실내공간은 공간의 종류 a kind of space로서 환경이라는 용어로 개념화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환경은 관계적 relational이고 체계적 systematic인 개념으로 '공간적 물리적인 실체 a spatial and physical entity' 이기 때문이다.³³⁾ 환경은 개방체계 open system로 생존적 가치에 필수적이며 그 체계 속에는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정보교환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³⁴⁾ 이러한 공간체계들은 근본적으로 M-E의 관계로 형성된 프ラ블리매티구조이며 ED의 대상이 된다. 어떠한 제도, 종류·기술·언어·실재·행동들로 구성되어진 환경속에서 M-E구조에 기초한 ED은 일상생활, 계획, 디자인, 예술, 건축학, 생태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와 실용학문분야에 적용 가능하다.³⁵⁾

어떠한 대상에 대한 하나의 이론, 담론 또는 텍스트는 인식론적, 이론적인 면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환경담론적 관점은 어떠한 대안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문제를 도식적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자기 비평적, 개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³⁶⁾ 다시 말해서 주어진 방법이나 접근법을 단순히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위한 어떠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을 뜻한다. 바르트 Roland Barthes의 기호학적 해석에 있어서도 소쉬르의 기본 개념인 '관점이 사물을 창조해낸다. 즉, 사물을 창조하는 것은 관점이다. C'est le point de une qui crée l'object'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점은 명시적으로 형성되어진 구체적이론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감정이나 선입견들을 열어 줄 수 있는 즉 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개념으로 파악했다.³⁷⁾ 특히 주제에 대한 감각과 날카로운 안목을 갖기 위해 상상력과 감수성을 지녀야

31) Ibid. p.39, 84.

32) Ibid. p.63, 154.

33) Ibid. pp.47~50.

34) Ibid. p.47. 재인용.

35) Ibid. p.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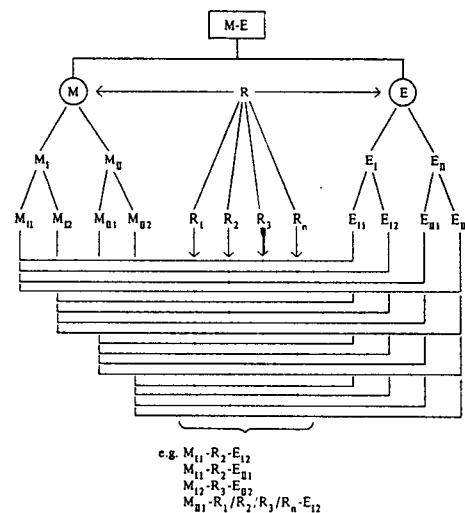
36) Ibid. p.8, 11.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기호학 분석에서는 해석자의 직관과 창조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2) 인간-환경의 관계구조

ED의 위상 status, 즉 판단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들은 담론의 대상 object, 구조 structure, 메커니즘 mechanism, 관계와 효과 relations and effects의 측면들로 이루어진다.³⁸⁾ ED의 대상은 다수성의 인식론적 구조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 구조는 어떤 대상 주변에 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표상되어진, 표현되어진 모든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E-M의 관계성으로 형성되어 있다. 담론구조는 가시적 실체 뿐만 아니라 그 실체들의 효과에 의해 나타난 관계의 장으로 설명된다.³⁹⁾ <표 5>는 M-E 구조모델로서 ED은 인간(M) 측면에서의 문제(M I 1, M I 2,...)와 환경(E) 측면에서의 문제(E I 1, E I 2, ...) 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관계적 문제들(R1, R2,...)로 구성된 복합적인 구조(M I 1-R1-E I 1,...)를 갖게 된다.⁴⁰⁾

<표 5> M-E 구조모델



ED에서 M-E관계는 <표 6>과 같이 개념적 쌍 conceptual couples에 기초하여 분석되어진다. 이러한 인간과 환경 각각은 인식론적으로 등가적, 동형적, 유추 또는 은유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체는 인간, 개인, 나, 조직, 사회, 사용자, 디자이너, 고객이며, 객체는 자연, 환경, 외부세계, 삶의 공간, 우주, 건물 등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내용은 인식론적 구조이며 담론의 거의 모든 변수들은 이러한 도식과 범주에 의해 구성되어진다.⁴¹⁾

37) S. Hervey, 1982, p.127.

38) N. Teymur, 1982, pp.58~59, 182, 182. ED에서 구조분석의 접근은 첫째, 프라블리매틱(M-E 또는 유기체-환경의 관계성) 둘째, 인식론(주체와 객체의 인식위에 프라블리매틱 관계가 성립됨) 셋째, 메커니즘(텍스트적 구조에 대한 실재의 분할 the division of reality, 개념적 쌍, 주체와 객체의 다수성의 관계를 포함)에 의해서 행해진다.

39) Ibid. p.21.

40) Ibid. p.91.

41) Ibid. pp.36~37.

공간기호학에서도 M-E 관계라는 용어로 표현되어지는 문제들, 즉 의미분석을 위한 의미론적 중심축은 물리적, 생태적, 기술적, 윤리적, 심리적 내용 등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 중 어느 한가지 원인, 원칙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다. 환경은 디자이너에 의해 계획되어진 물리적 환경일뿐 아니라 복잡한 이론적 개념들을 사회적으로 한정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 형태는 사회적 구조를 담아내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간기호학에서도 그 대상의 의미는 M-E 관계에서 야기되는 복잡한 문제형성체계를 즉, 프라블러메틱을 기저로 했을 때, 파악되어지고 분석되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환경이 갖는 문제들은 주로 미학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합리적, 생태적인 범주들로 형성되어진다.

〈표 6〉 M-E의 관계⁴²⁾

유기체-환경	안-밖	활동-공간
인간-세계	나-나 이외의 다른 것	부분-전체
인간-사회	자신-타자	시스템-초시스템
인간-자연	텍스트-컨텍스트	주체-객체
사회-환경	마음-육체	문화-자연
개인-사회	A-A가 아닌 것	건조환경-자연환경
사적-공적	내적환경-외적환경	빌딩-도시
디자이너-디자인된 것	행태-환경	인공-자연
내부-외부	내용-용기	가상-실제

3-2. 사회기호학적 관점

1) 사회학적 관점

기호학에서 사회학적 관점(소쉬르는 심리사회학적 관점으로 설명)은 소쉬르의 랑그와 파롤의 구분에 기초한 것으로 기호체계로서의 언어를 사회적 제도 institution로 인식하는데 기인한다.

바르트는 소쉬르의 기호학적 언명인 '사회적 삶속에서 기호들의 삶에 대한 연구 qui é tudie la vie des signes an sein au la vie sociale'라는 과학으로서의 기호학에 대한 견해를 확대 해석하여 '사회 문화적 의미작용 socio-cultural signification의 이데올로기'로서 기호를 설명하고 있다. 바르트 기호학에서 이데올로기의 본성은 사회적 삶과 모든 문화안에서 전달되어지고 지각되어지는 '관념의 총체 the sum total of ideas'로 설명된다. 또한 기호학적, 이데올로기적 의미와 함께 기호작용을 현대사회의 삶 전체와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영역과 다수의 비예측성이 강한 새로운 영역(광고, 문학, 사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스포츠, 영화, 의복, 요리 등)에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문화적 규정, 규약이 특정한 의미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호를 '이데올로기의 복합체'로 정의한다.⁴³⁾ 구조주의 기호학을 발전시킨 그레마스도 사회행동의 구조를 포함한 모든 문화구조에 그의 기호학적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다.⁴⁴⁾

보들리야드 Jean Baudrillard는 시뮬라시옹 simulation,⁴⁵⁾ 가상주의 사회학을 통해 매스미디어, 상업주의, 욕망의 추구 등 포스트

모던 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호적 가치들(이미지적 표상 모드로서 과도실제들 hyperrealities,⁴⁶⁾ 가상적 실제들 virtual realities의 복잡한 함축성에 의해 캡슐화 되어진 일상 생활의 여러차원들을 의미)을 광고, 일상생활의 대상, 전자상품들, 주택, 쇼핑센터, 쇼핑몰, 테마공원, 의상 등으로 설명한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실제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의 즉 의미를 창조하고 있으며 의미란,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진 것 그 자체라고 강조한다.⁴⁷⁾ 특히 보들리야드에 의한 포스트모던 기호학에서는 마르크스의 생산양식이 기호의 의미 작용 양식 mode of signification으로 대체된 것으로 바로 기호가치 sign-values로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가상적이고 초실제적인 이미지와 상징적 기호로 형성된 기표를 사람들은 소비(욕망충족을 위한 욕망의 소비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미지가 기호로서 작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원본 original이 없는 가상물은 상상을 실체로, 부재를 현전으로 제시함으로서 현실계를 가상적인 세계로 흡수해버린다는 것이다. 점점 현실과 가상의 구별이 어렵게 되고 실재보다 더 실재같으려고 기호를 조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사실들은 점점 사회기호학이 문화현상의 분석과 동시에 문화비평이라는 관점으로 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고도소비사회의 기호와 상업주의 반영, 그리고 대중적 정보와 이미지들을 전달하기 위한 미디어 건축 media architecture이 실현되고 있으며, 건축에 비물질적, 가상적, 텔레마틱 telematic 공간과 과도실재적인 과도공간 hyperspace이 고도 기술과 결합되어 증가되고 있다. 건축 패사드 façade는 일종의 센서가 부착된 미디어 스크린으로 그 표면은 각종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빛, 다양한 전자미디어와 결합되어 환경에 새로운 서술적 narrative 측면이 창조되고 있다.⁴⁸⁾ 이제 건축은 단순히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가 아닌 '다기능의 해프닝을 수행하는 그릇'으로 불려지고 있다. 미디어 문화와 사회의 표현으로서 대표되는 오늘날 건축은 종래의 건축어휘, 문법 그리고 수사학을 변화시키고 있다. 건축가 장 누벨 Jean Nouvel은 건축디자인, 광고전략에서 물질성이 비물질성과 탈물질화로 향하는 경향은 '실재의 소멸 disappearance of reality'의 등장, 즉 과도실재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적 상황이 증가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의 환경이

45) J. Baudrillard, 시뮬라시옹, 하태완 역, 서울: 민음사, 1992, pp.9~10
역주참조. 보들리야드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시뮬라르크 simulacres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모조품, 가상물을 지칭한다. 원본 original이 없는 이미지가 그 자체로서 현실을 대체하고, 현실은 이 이미지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므로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다. 시뮬라시옹 simulation은 시뮬라르크의 동사적 의미로 '시뮬라르를 하기'이다.

46) Ibid, p.12. 실재 real는 현실 혹은 사실을 지칭하고 실재 hypereal란 불어의 hyperréel을 번역한 것인데, hyper는 극도의, 과도의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이다. hyperréel은 시뮬라시옹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실재로서 어떤 현실을 극도의 현실로 만든 것이라기 보다는, 실재라는 현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현실을 뜻한다.

47) M. Gottdiener, 1995, pp.25~27 참조.

48) C. Thomsen, Visionary Architecture, Munich . N.Y.: Prestel-Verlag, 1994, p.9.

42) bid, p.67.

43) S. Hervey, 1982, pp.27~129.

44) M. Gottdiener, 1995 p.17.

한 상호작용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뜻한다.⁴⁹⁾ 수많은 정보, 미디어, 기호로 구성된 문화적 컨텍스트 속에서 환경에 대한 담론은 더이상 단순한 물리적 구조체로서만이 아닌 사회적, 이데올로기적인 관계속에서 논의되어져야만 한다. 미래의 도시, 건축환경이 갖는 사회기호학적 통사구조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틀안에서 의미작용 되어지는 특수한 공간 언어 체계로 대체 될 것이다.

사회기호학은 아직까지 생소하고 개념적인 논란을 지니고는 있으나 이 용어는 문화속에 내재하는 모든 것을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볼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으로 점점 일상생활의 기호학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⁵⁰⁾ 일반적으로 사회기호학은 해체주의자들에 의해 주로 텍스트분석에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주목적은 문화현상의 분석이다. 오늘날 사회기호학의 대부분의 분석(데리다의 텍스트분석, 리요타르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문제, 보들리아드의 문화분석 등)은 문화의 생산과 문화의 소비라는 두가지 관점을 갖고 주로 행해지고 있다.⁵¹⁾ 모든 사회적 텍스트와 사건, 활동등을 문화와 기호라는 렌즈를 통해 투사하고 있으며, 의미작용은 바로 사회문화적 컨텍스트와 상호작용 과정속에서 발생되고 의미가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사회학적 관점에 기초한 예술적 대상의 의미분석⁵²⁾은 사회성이라는 의미의 축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예술가의 개인적 발상 과정과 스스로 어떤 보편적인 범주화에서 시작하여 어떠한 사회적 태도를 개념화 시켰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사회 중심적 sociocentric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되어지는 중요한 사항은 첫째, 예술가 스스로의 고정관념, 복잡한 규범안에서 일정하게 제도화된 사회문화적 규정들과 둘째, 그 대상이 속해 있는 사회적 컨텍스트, 계층과 집단등의 인식구조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객관적, 과학적 접근은 인상적, 주관적인 접근보다 훨씬 더 깊고 많은 이해와 의미 파악을 가져다 준다. 기호학에서 사회학적 관점은 모든 문화 현상을 기호체계로 보는 것이며 특히 예술로서의 환경은 시간, 장소, 사회 집단의 상징적 symbolic 또는 암시적 표현 symptomatic manifestation⁵³⁾이며 동시에 사회적 제도 또는 사회적 기호체계의 변형체들 variations로 고려되어진다.

2) 사회문화의 기호체계

사회기호학에서 분석은 그 문화적 대상이 위치해 있는 사회의 가치체계와 그것이 반영되어 나타난 물질적 형태를 분절하고 그 분절 요소들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⁵⁴⁾

바르트에 의하면, 문화의 기호 작용체계는 외연적 코드 denotative code(사회적 가치체계로 형성된 문화현상)와 함축적 코드

49) Ibid. p.173.

50) M. Gottdiener, 1995, pp.185~187 참조.

51) Ibid. pp.29~31 참조.

52) L. Marin, "The Semiotic Approach", in M. Dufrenne Ed., Main Trends in Aesthetics and the Sciences of Art, N.Y.: Homes & Meir Publishers, 1979, p.159. 참조.

53) Ibid. p.159 역주 참조. 파노프스키 Panofsky는 암시적 표현들을 도해 iconography와 도상학 iconology(1939, 1955), 카시러 E. Cassirer는 상징적 가치 symbolic values와 상징 symbols으로 설명 함.

54) M. Gottdiener, 1995, p.29.

드 connotative code(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양측면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⁵⁵⁾ 코드는 사회적 관습체계로서 기호의 조직원리를 갖고 있으며, 의미작용을 매개하는 심리적, 문화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사회적 코드를 유지하기 위한 힘이 작용하여 자동적으로 기호화되어 고도로 관습화된 코드를 갖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새로운 사회적 코드를 생산해 내기 위한 탈기호화의 지향성이 생겨난다. 이러한 두가지 힘의 긴장 관계속에서 그 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이 가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코드에 의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며, 코드는 시대, 문화, 가치관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탈기호화는 통상적 기호가 갖는 기의와 기표의 관계를 해체시키고 그 관계를 새로운 질서위에서 재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기호학적 관점에서 소쉬르, 엘름슬레우의 기호학 이론에 기초하여 기호를 재구성 decomposition하면 <표 7>⁵⁶⁾과 같으며 다시 건축환경에 적용하면 <표 8>⁵⁷⁾과 같다.

<표 7> 사회기호학에서의 기호의 재구성

<표 8> 건축기호의 재구성

		실 질 비코드화된 이데올로기		기호
기호	내 용	형 식	코드화된 이데올로기	
		형 식	형태론적 원리	
기호	내 용	실 질	물질적 대상, 텍스트	기호
		실 질	사회적 이데올로기	
기호	내 용	형 식	건축적 이데올로기	기호
		형 식	건축적 패러다임	
		실 질	전체형태와 단위들	

기호가 갖는 내용의 형식은 코드화된 이데올로기 codified ideology로 그 사회의 가치체계를 일컬으며, 그 내용의 실질은 비코드화된 이데올로기 non-codified ideology(이데올로기의 전체적인 배경, 근원으로서의 문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호가 갖는 표현의 형식은 형태론적 원리 morphological elements로서 전체형상을 구성하는 형태소의 종류와 그 통합방법, 즉 규칙이나 문법을 일컫는다. 표현의 실질은 내재되었는 그 형태론적 원리와 규칙에 의해 물질적대상, 텍스트와 같은 물질성 materiality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⁵⁸⁾는 문화라는 실질안에 내재된 기호내용의 특수한 형식이며, 형태론적 원리는 물질적 대상이라는 실질안에 내재된 표현의 특수한 형식을 일컫는다. 코드화된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질서 안에서 인간에 의해 의도되어진 계획, 디자인, 상호작용, 상품화 등에 의해서 가시적 실체로 전환된다. 환경은 디자이너의 의도

55) Ibid. p.26.

56) Ibid. pp.28~29.

57) Ibid. pp.87, 89.

58) Peter Zima, 이데올로기와 이론, 허창운, 김태환 공역, 서울: 이론과 지성사, 1996, p.42, 322 참조.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가 한 사회의 공통분모라고 한다면, 특정 이데올로기의 규범과 가치는 그 부분 체계를 형성한다. 이데올로기는 한 사회속의 단일 혹은 다수집단의 특수한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사회조직과 질서를 적법화하는 한 묶음의 관념들, 신념체계를 일컫는다. 따라서

와 다양한 변수 요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기호학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축에 위치하고 분석해야 된다. 수직적인 계열체적 관계체계(사회문화속에 내재된 건축적 이데올로기, 가치관, 관습 등)와 수평적인 통합체적 관계체계(건축적 패러다임, 건축디자인 사고와 방법 등)가 결합됨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생성되고 의미효과를 갖게 된다.⁵⁹⁾ 최근 과도실재성과 가상성이 중요한 디자인 원리로 자리잡고 있는 테마 공원의 대표적 예로서 디즈니랜드는 상상과 꿈, 이상향을 매개로 세계 곳곳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는 소비자본주의라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시뮬라시옹에 의한 욕망을 소비하는 소비 사회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루이마랭 Louis Marin은 디즈니랜드 공간의 의미론적 분절구조를 자연/기계, 과거/미래, 실제/환상 등으로 대립시켰다. 이러한 분절요소들은 역사, 사회적 컨텍스트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기호의 구성요소가 된다.⁶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은 기표들의 조작을 통한 기호전달로 상상, 이상보다는 오히려 허구성과 상상력의 퇴행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보들리야드에 의하면, 현대사회는 기호와 코드의 범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로 물질적 환경이 상품이 아니라 그 이미지, 기호가 상품으로 소비되는 즉 '기호의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 of the sign'를 만들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회기호학 연구에서 한 사회의 기호체계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담론 discourse의 기초가 되는 의미론적 대립을 찾아내어 담론의 서술구조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구조가 어떤 사회적 환경속에 놓여져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떤 사회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의 고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의 사회 기호학은 문화분석과 비평을 동시에 수행해 나가야 하며, 기호를 생산해내는 전문가 집단은 현재의 변질된 사회적 코드와 잊어버린 사회적 코드를 회복시키고 보다 심층적이고 의미론적인 차원들을 생산해 내야 할 것이다.⁶¹⁾

4. 공간기호학적 접근 방법

4-1. 도시환경의 기호체계와 의미

초기 산업사회에서의 도시는 환원적, 기계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한 합리성, 기능성만을 강조하여 전체를 부분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정태적이고 유클리드적 Euclidian인 구조를 성립시켰다. 그러한 공간 역시 사회적 산물로 사회학 연구에 있어서도 정태적인 사회형태론을 다룰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시환경은 고도정보화, 매스 미디어의 증가등 사회적 집단의 이동성 등이 강화되면서 공간과 사회언어는 급진적으로 역동적 사고구조로 전환되고 있다.⁶²⁾

59) M. Gottdiener, 1995, pp. 87-89.

60) Ibid, p.29.

61) Ibid, pp.186-187.

62) A. J. Greimas, 1990, p.141.

63) M. Gottdiener, 1995, p.28 참조. Polysemy는 poly(여럿)와 seme(의미)의 결합으로 다중의미, 다의미성으로 불리운다. 이는 하나의 형상에 관하여 여러개의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의 형상은

도시는 다양한 사회적 의미와 내용들이 서로 위상적 관계속에서 결합되어지는 다의미성 polysemy⁶³⁾의 공간으로 사회기호학적 대상이 되고 있다. 도시환경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관점은 공간텍스트의 구조와 형식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주목하는 것이다. 도시는 인간의 삶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상으로 복합적인 사회현상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또한 도시는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며 시간적 변화의 축에서 전통과 기술, 빈부차이, 지역차이, 이질적인 문화들이 서로 교차되는 곳으로 건축환경을 단순히 독립된 물리적 실체로 한정할 수 없는 도시문화 전체체계의 부분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건축환경이 도시적 차원에서 해석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도시의 공간형태는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응 되기 때문에 공간언어와 사회언어는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간언어를 통해 사회적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도시는 사용자, 특정집단의 이해관계, 관심, 가치지향을 담아내기 위해 미학적·정치적·사회적·합리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도시에 대한 담론은 이데올로기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소비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대상이기 때문이다. 도시는 모든 부분들의 특성에 의해 구성된 복합체계로 위상학적 기호학 topological semiotics 대상이다. 특히 도시문화와 삶의 양식이 관계된 곳으로 다면체적 multifaced인 일과 사건이 전개되는 곳이다. 도시환경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체계에 의해 분절되며 이렇게 분절된 구조를 통해 그 도시의 의미와 이데올로기가 파악될 수 있다. 그레마스는 공간언어를 사회언어의 범주로 설명하기 위해 사적인/공적인, 신성한/세속적인, 외연적인/내연적인, 우세한/열등한, 남성적인/여성적인 대립형들로 이루어진 가치대립을 장소안에서 분류시키고 있다. 또한 도시의 이데올로기는 <표 9>와 같이 3 범주로 분류되며 전체적인 담론을 이끄는데 작용되어지는 분류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레마스는 이것을 '가치론적 동위성들 axiological isotopes'이라고 불렀다.

<표 9> 도시기호체계의 3범주

범주	내용	대립항
미학적 aesthetic 측면	미적경험과 관계된 개념	조화/부조화
정치적 political 측면	사회적, 도덕적 개념	건강/병적
합리적 rational 측면	행태적, 기능적 효과	적합/부적합

도시는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읽혀지는 메타텍스트 metatext로 이러한 관계들의 위상적 배치를 통해 다양한 기호학적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⁶⁴⁾

의미의 장안에서 동시에 또 하나의 형상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러한 한 대상에 대한 다중의미를 마랭 L. Marin은 polysemy로 명명했으며, 그레마스 A. J. Greimas는 '다양한 기호체계 different sign system' 또는 '가치론적 동위성들 axiological isotopes'이라고 명명했다. 환경은 단일의미, 일의성 monosemy로 형성된 것이 아닌 기호들의 복합체로 다양한 의미들이 서로 중첩, 교차되어 전체의미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64) A. J. Greimas, 1990, p.141 ; M. Gottdiener, 1995, pp.17~18 ; M. Krampen, 1991, p.238. 참조.

4-2. 건축환경의 기호체계와 의미

공간기호학은 환경의미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환경의미 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식의 대상은 환경의 주체로서 인간이나, 환경의 객체로서의 시각적 자질들이 아니라 서로의 상호관계속에서 정의된 구조론적, 위상학적 공간과 장소이다.⁶⁵⁾

공간에 대한 담론은 장소를 취하게 되며 이 장소가 취하는 공간의 형식은 상호대립되는 차이, 즉 이질적인 주제들 heterotopics의 관계속에서 개념화 된다. 장소는 서로 다른 대상물과 사건의 연접 conjunction과 이집 disjunction의 연속체로서 존재하며 여기/저기, 둘러싸인/둘러싸고 있는 공간적 경계들의 관계를 취하게 된다. 공간기호학에서 있어 적절한 기호학적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쉬르 이론을 발전시킨 엘름슬레우와 그레마스의 모델이 적합하다. 엘름슬레우의 모형에 그레마스의 위상학적 기호학을 적용시키면 <표 10>과 같다.

<표 10> 그레마스에 의한 건축기호의 재구성

		문화 culture			
기호	내용면	형식	이데올로기 ideology	기의	기호
	표현면	형식	공간 space	기표	
		실질 외연성 extension			

공간기호학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단위들은 표현적 매체를 통해 실제로 우리의 감각에 지각된 실질이 아니라 실질아래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형식이다. 그레마스는 공간분석에 있어 그 표현면이 갖는 대립성을 외연성 / 공간 extension(expanse) / space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환경은 자연적, 인공적인 대상물들로 가득채워진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외연적 外延的 형상들로 조직되어 있다. 가시적 물체로 표현되어진 공간의 다양한 형상들을 실질이라고 한다. 이러한 다수의 구체적 현상들이 하나의 공통된 성질과 특성으로 개념화 되어 있는 것을 형식이라 한다. 외연성⁶⁶⁾은 표현면의 실질로서 형상적 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간의 감각채널을 통해 전달되고 감지된다. 또한 지상의 표면과 같은 것으로 물체가 공간을 점유, 포함하고 있는 넓게 퍼진 연장성을 나타내는 공간적 모드를 제공하게 된다. 공간은 표현면의 형식이며 외연성은 공간조직의 구조적 원리, 시각적 힘들의 분포, 배열규칙과 패턴 그리고 시공간적 위치 spatio-temporal position로 설명되는 공간과장소라는 형식에 의해서 인식된다. 따라서 건축환경이 갖는 표현적 차원은 외연성과 공간

65) 김형효, 1989, p.497. 참조. 여기에서 위치는 3차원상의 실제적인 넓이, 두께를 가진 공간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완전히 개념으로 형성된 구조적인 공간과 위치이다. 의미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위치와 위상과 관련한 의미일 뿐이다. 그러므로 순수한 구조공간 속에 있는 장소는 사물이나 현실적 존재라기 보다는 인식적인 것이다.

66) 외연성 extension은 확장, 연장의 뜻으로 논리학에서는 외연 外延 denotation, 물리학에서는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는 성질의 뜻이다. expanse는 넓게 퍼짐, 팽창, 확대, 가로막는 것이 없는 공간이란 뜻으로서 그레마스는 공간형식에 의해 드러난 실질을 extension, expanse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리학에서 사용되어지는 외연성으로 해석하기로 하겠다.

적 모드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중재적 노력과 의도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일종의 공간형식 space-form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적 차원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적 차원은 문화라고 설명되며 그 문화의 형식은 일정문화안에서 한계 지워져 있는 이데올로기가 된다.⁶⁷⁾

이처럼 건축환경은 기호체계로서 일정한 형식을 이루게 되며 기호작용은 드러나 있는 실질들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와 공간이라는 형식들의 관계성 즉, 기의 범주와 기표범주의 관계성이 통해서 발현되고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기호는 의미작용체계의 한 부분으로 통합체적, 계열체적인 축에 대해서 구조화 되어짐을 의미한다. 통합체적인 관계는 전체형태를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들의 통사적 syntactic관계(원리, 규칙, 패턴, 방법)를 의미한다. 또한 계열체적 관계는 외연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의미, 즉 시각적 특질들과 대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의미(연상적 사고, 집단적 가치, 관습, 기억, 경험, 사회적 제도등)들로서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관계된 것이다. 이와같이 공간기호학에서는 표현적 차원(표충구조)에 대한 통사론적 해석(형태생성문법과는 다르다)과 내용적 차원(심충구조)에 관한 의미론적 해석이 동시에 수행되어져야 한다. 환경의미는 사회 문화적, 기술적 제조건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오직 통사론적인 차원을 통해서 그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바닥, 벽, 기둥, 천정, 창문, 문 등의 기표체계를 가진 환경모두를 건축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기호학적 접근방법에서는 기표체계의 시각적 특질들로 구성된 전체형태 configuration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의 의도성과 시대성, 사회성 등과 같은 기의 체계의 함축적 의미를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4-3. 환경의미 분석모형

환경의미 분석은 어떠한 기호학적 메커니즘, 모형과 같은 기호학적 분석의 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소쉬르의 이론은 엘름슬레우를 통해서 형식화 되어 실질과 형식, 내용과 표현이라는 기호체계의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그뒤 형성된 그레마스에 의한 기호4각형 semiotic square이라는 추상적인 관계체계는 의미생성행로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호학적 모형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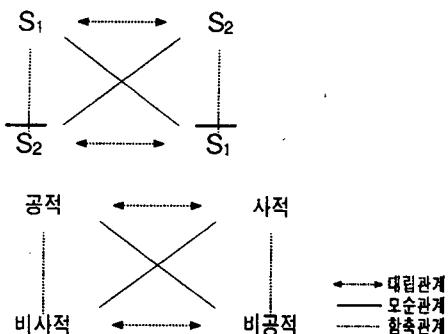
건축환경은 인간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와 변수들이 존재하고 조형적 특질들이 변화, 중복, 합성되면서 전체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행위에 의한 활동, 공간, 물체들로 이루어져 서로 대립되는 가치들에 의해 연접과 이집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과정 process과 상황 situation으로 간주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미의 본질과 그 생성행로를 규명하기 위한 기호학적 모형으로 그레마스의 기호4각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11>의 기호4각형은 동일한 구조를 구성하는 변별적 자질들이 유지하는 의미의 위상적 관계들을 시각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의미작용의 총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의미소들(형상적, 주제적 요소 등)을 S1과 S2로 분절시켜 상위 반대항을 형성한 후 아래에 하위반대항을 구성한 것으로 이들은 함축관계이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지

67) A.J.Greimas, 1990, pp.139~140.; M.Krampen, 1991, pp.238~239.

〈표 11〉 기호사각형(S1/S2)

〈표 12〉 기호사각형(공적/사적)



식인 대립, 모순을 이용한 것으로 이 4각형내의 두사항중 어느 한 사항이 다른 사항을 전제하는 의미의 축으로 간주된다. 〈표 12〉는 건축환경이 갖는 조형적 대조를 공간의 사회적 개념으로 대치시켜 공적/사적으로 분절시킨뒤 기호4각형내에 위치시킨 것이다. 이러한 전환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칙이 건축환경의 통사론적 구조를 형성 할 수 있으며 기본관계들의 분절과 특히 대립, 모순관계에 의한 이 접은 중요한 개념으로 의미작용을 위한 동태적 국면을 제공하게 된다.

건축환경의 전체적 장안에서 의미의 균형과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반복적인 동일한 의미소, 즉 의미의 동질적 차원으로서의 동위소 isotope⁶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호 4각형의 4면이 갖는 위상적 관계 설정에 있어 주제적, 개념적 관점, 즉 모티프를 찾아내어 이원적 분절을 통한 의미의 범주화를 선행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레마스 연구에 대한 독창성은 분석 대상에 대한 조작 가능한 개념들을 구조화하는 인식론적 차원(사변적 접근)과 그것의 관계적 구성과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발전적 절차, 즉 텍스트적 지식의 발견(경험적 접근)을 각각 분절하여 전체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⁶⁹⁾ 그 분석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기호를 관계의 망으로 규정하고, 둘째, 의미생성의 관계들을 공식화 하기 위해 개념들의 분절을 시도하고 의미형식 배치를 시도한다. 여기에서 의미생산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발견적 절차(대립, 모순, 합축 관계) 등을 제시한다. 셋째, 추상적 개념으로 구조화된 서술구조, 즉 형식적 배치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해석적, 기술적 전환을 시도한다. 그리고 내포적 의미를 기술하기 위한 메타담론을 실시하는 것이다.⁷⁰⁾

결과적으로 서술구조 narrative structure(잠재적 구조)에서 구체

68)동위성 同位性 isotopy은 희랍어 iso(같은)와 topos(위치)의 합성어로 동일한 성질, 상태를 의미한다. 그레마스는 기호학에 화학에서의 동위소 同位素 isotope라는 용어를 빌려와서 의미론적 분석에 적용시키고 있다. 이 용어는 의미작용의 종체성과 일관성을 제공하는 의미론적 요소들(형상적, 주제적 요소들)의 반복성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담론의 전체적인 의미의 동위성을 확보해주는 분류소로 작용되어 진다.

69)A. J. Greimas, 1990, p.vi.

70)김복영, 회화적 표상에 있어서 기호와 행위의 접근 가능성 : N. Goodman 기호론의 발전적 고찰, 숭실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7, pp.109~120 참조. : H. Parret, 1995, pp.56~57 참조.

적인 담론구조 discursive structure (현실화하는 구조)로 발전해 가는 생산과정의 결과에 의해서 의미는 파악되는 것이다. 그레마스는 이러한 과정을 의미생성행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미 분석에 적용되어지는 기호 4각형은 전체형상이 갖는 조형적 특질과 그 의미들을 환원하고 도식적으로 분석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 일적인 관계체계를 이루어 담론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된다.

4-4. 환경의미 분석방법(표현면)

공간기호학 분석⁷¹⁾은 공간적 텍스트 spatial text에 대한 인식론적인 언어 epistemological language를 형성하여 공간적 담론을 진행시키는 과정이다. 분석에서 대상환경의 표현면에서는 감각적, 지각적인 형태들이 분절되고 그 내용면에서는 이데올로기적, 내재적인 의미가 분절된다. 공간적 형상 spatial figures의 감각적 특질들 sensorial qualities은 일종의 공간형식 space-form이다. 공간형식이 갖는 의미는 경험적 결과에 의한 것이며 공간텍스트에 나타난 감각적으로 수용되는 차원들을 분절시킴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⁷²⁾ 또한 환경은 서로 겹치고, 포함, 중첩되는 일련의 행태적 장치 behavioral setting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적 차원뿐만이 아닌 행동패턴과 사회적 관습, 건축적 양식등에 의한 상징적 환경 또한 공간인식의 중요한 변수이다.

환경의미는 공간형식이 갖는 시각적 특징, 변별적 형상 distinctive figures의 지각을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전체형태의 분석은 구조주의적 지식인 대립적 관계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다. 특히 인간행태와 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미분석은 상징미학 symbolic aesthetics과 형식미학 formal aesthetics의 접근방법을 결합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더 효과적인 의미범주화와 구별화를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상징미학적 관점에서 합축적 의미를 생성해내는 경험적 요소, 즉 상징적 의미를 암시하는 건축적 변수들(전체형태, 공간적 전체구조, 재료, 조명, 색상 등)을 인간행태의 관련성 안에서 분석하고 그 관계가 산출해내는 의미효과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형식미학적 관점에서 대상환경에 대한 인지적, 행태적 그리고 환경적 특징을 고려하여 미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속성들 attributes을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미학적 관점은 환경이 갖는 표면적 구조와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와의 결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의미 생성과 행태 효과 등 무엇이 어떻게 인간에게 지원되는가, 어떤 의미가 생성되고 발현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⁷³⁾

71) 공간기호학적 분석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그 대상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형성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전체형상, 구조과정, 관계된 텍스트, 언어, 그래픽, 도면, 사진, 영화적 기법, 인터뷰 등 의미 파악을 위한 일체의 모든 조건을 구축해야 한다. Jean-Marie Floch, 조형기호학, 1994에 수록된 벨기에 건축가 조르주 벤 George Baines이 설계한 브라운 슈바이크의 집(1976)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참고할 것.

72)A. J. Greimas, 1990, pp.158~159.

73) J. L. Nasar Ed., Environmental Aesthetics, N.Y.: Cambridge Univ. Press, 1988, p.3. pp.118~119.

벌라인 D.E. Berlyne은 환경지각에 대한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 시각적 대상이 갖는 대조적인 변수들 collative variables(놀랄 surprise, 대립 contradiction, 서로 다른 미적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지각적 특성들)을 비교함으로서 지각자는 의미를 발견하고 지각적 구조화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⁷⁴⁾ 카프랜 S. Kaplan & R. Kaplan은 복잡성/일관성 complexity / coherence, 신비성/명료성(식별성) mystery/clarity(legibility) 등의 상호관계 속에서 미적 가치를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결국 이런 속성들이 의미 생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⁷⁵⁾ 그레마스에 의하면, 자연세계를 이루는 형상들은 지각을 통해 의미로 변형된다고 설명하고, 지각을 인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지각을 의미 파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본 것이다. 기호학에서 지각활동은 곧 기호활동으로 간주되며, 환경은 자극의 집합체임과 동시에 기호의 집합체로 설명된다. 기호학적 분석에서 이러한 지각활동을 통한 감각적 차원들을 그레마스는 기질 氣質 범주(예를 들어 鮮/불鮮)로 불렀으며 기호 4각형위에 표시되는 4면의 의미 범주는 이러한 기질 범주에 따라 가치를 갖게 된다. 공간에 대한 인지적·행태적·환경적 경험의 결과로 형성된 범주들로서 가치체계 axiological system가 된다.⁷⁶⁾ 건축환경의 전체형태는 다양한 변수들로 이루어진 가치체계들의 관계망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공간세계는 관찰자의 이동 locomotion에 의한 상대적인 시점 그리고 움직임 movement에 따라 지각되기 때문에 구조와 표면의 변화, 주변광 ambient light과 음영의 변화 등 연속적 경험 sequential experience과 관계된다. 따라서 표현면 분석에 있어 3차원적 공간에 대한 지각적 특수성⁷⁷⁾을 이해해야 한다. 환경의 전체형태, 공간구조, 색상, 재료, 질감, 조명 등은 지각적 변수로서 작용되어지며 거리, 크기, 가장자리, 윤곽선, 각도, 밝기, 높이 등의 시각적 특징, 차이에 의해 복잡한 공간적 코드를 형성하게 된다.⁷⁸⁾ 또한 공간구조는 내부와 외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공간의 입구성, 축성, 크기의 변화, 빈공간과 채워진 공간 등의 반복과 분절을 통한 관계체계이다. 공간의 시각적 배열 visual array은 다

74) M. Krampen, 1991, p.262.

75) J. L. Nasar Ed., 1988, p.4.

76) 박인철, 의미의 전조건 : 문화와 기호 . 기호학연구 1집,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pp.92~92 참조.

77) 환경지각의 특수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보다 전체 관계체계, 패턴을 지각한다. 공간지각은 인간주변의 종체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물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둘째, 의미있는 지각적 패턴은 환경적 특성, 변별적인 특성, 차이에 의해 지각된다. 세째, 불연속적인 자극 disconnected stimuli의 해석에 있어 지각자는 동형성, 즉 향상성의 구조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공간전체의 효과는 단순한 형상의 배치와 구성에 의해서 생성되지 않으며 반복되어지는 서로 다른 대립적 요소의 교차 cross, 병치 juxtaposi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주제적 모티브의 중첩, 반복, 변이 등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일관성을 통해 의미있는 패턴으로 지각되어진다. 넷째, 표면과 볼륨으로 이루어진 3차원적 세계내에서의 인간의 움직임에 의한 이동은 환경지각의 중요한 변수이다. 확장된 시공간적 패턴안에서의 행위와 시각적 배열 그리고 장소의 개념이 중요하다. 지각자는 공간내에서 이동을 통

양한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의미의 위계적인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⁷⁹⁾ 이러한 공간 패턴은 공간적 배열과 배치에 의한 전체 형태의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그 패턴은 인간에게 어떤 미적해석이나 의미작용 같은 어떤 지원성 affordances을 제공하게 된다.

〈표 13〉 변별적 특징들의 범주

시각적 기본요소	선, 형태, 색상, 질감, 재료, 표면, 조명, 윤곽선, 가장자리, 주변광
공간구조적 범주	움직임, 이동, 상대적 시점, 입구성, 축성, 공간크기의 변화, 전망, 시각적 배열, 배치, 방향, 깊이, 기방성
미학적(심리 물리적) 범주	복잡성, 단순성, 질서성, 균형, 일관성, 명료성, 신기성, 새로움, 즐거움

〈표 14〉 범주의 대립적인 분절구조

시각적 요소의 분절	공간구조적 분절	미학적 분절
밝은 / 어두운	개방적인 / 폐쇄적인	자연성 / 인공성
높은 / 낮은	왼쪽의 / 오른쪽의	복잡성 / 단순성
위 / 아래	가까이 / 먼	복잡성 / 일관성
수직 / 수평	규칙적인 / 불규칙적인	장식성 / 순수성
곡선 / 직선	둘러싸는 / 둘러싸인	신비성 / 식별성
직각 / 비직각	움직이는 / 고정된	모호성 / 명료성
거친 / 매끈한	중심적인 / 주변적인	질서성 / 무질서성

〈표 13〉과 같은 변별적 특징들의 범주와 〈표 14〉와 같은 범주들에 의한 분절구조는 기호학적 가치체계들로서 의미생성행로를 규명하기 위한 관계체계구축에 사용되어진다.⁸⁰⁾ 기호4각형과 같은 기호학적 모형에 적용시켜 의미분석을 위한 잠재적 서술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계열체적 관계체계와 결합되면서 새로운 의미관계 산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범주들을 병치, 치환, 중첩시켜서 역동적인 위상적관계 체계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설명하고 기술할 수 있는 메타언어를 확보하여 공간적 담론을 전개시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서와 같이 의미작용의 분절은 동시에 차이성과 관계 배치로 이어지는 것으로 건축환경의 표현면에 대한 분석은 형상적인 차원만을 어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관계체계, 즉 시각적 특징들의 관계들을 어휘로 나타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경 의미는 시각적인 연속적 병치와 시각적인 변별적 특징, 차이에 의해

여 유클리드적인 좌표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자 자신의 독자적인 방위정립을 위한 좌표체계를 형성하게 되며 계속적인 주의 attention와 연속적 조망을 제공하는 시각적 단서 visual cues에 주목하게 된다. 다섯째, 인공, 자연광원에 의한 밝기와 색채지각은 환경지각의 중요한 변수로 오히려 형태적 요소보다 더욱더 큰 의미를 생성해 낼 수 있다. 상징적 색채, 재료, 질감, 주변광과 움직임에 의한 표면, 질감, 명도의 대조는 중요한 의미의 본질을 드러내준다.

78) A. J. Greimas, 1990, p.154.

79) M. Krampen, 1991, p.245.

80) M. Krampen, 1991, p.241. 그레마스는 공간대립의 동형적 의미분절을 시도한 후 공간적 형상들의 복록작성을 제안한다. 1단계는 요소적 단위 elementary units(직선/곡선), 2단계는 요소적 문법 elementary grammar(삼각형 / 사각형), 3단계는 텍스트 문법 text grammar(전체 형태)에 의한 공간적 형상의 계층적 분석을 제안한다.

의 분절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형성된 전체형태, 패턴이기 때문에 기호학적 분석에 의한 결과는 역으로 전체형태를 구조화 시킬 수 있는 규칙과 패턴으로 작용되어 질 수 있다.⁸¹⁾

5. 적용사례연구(‘H’ 갤러리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환경은 역사적인 장소성과 문화적 벨트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경복궁옆에 위치해 있는 H 갤러리이다.⁸²⁾ 이러한 사례연구는 앞서 환경의미의 분석을 위해 제안되어졌던 관점들과 공간기호학적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분석에 있어 건축상의 기본방침은 세세히 다루지 않기로 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갤러리 전체 형태가 갖는 외연성 extension의 조형적 특성만을 분석대상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심층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 형식과 함축적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효과를 기술하는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겠다. 즉, 기호체계와 의미생성행로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가의 계획의도를 분석내용에 참고하였다. 일차적으로 H 갤러리의 공간적 담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환경 또는 주체-객체라는 인식론적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문제형성체계, 즉 프라블러메틱을 기저로 했을 때 가능하다. H 갤러리에 내재되어 있는 일관된 가치체계, 주제적 모티프들로써 주변컨텍스트/H 갤러리, 전통/현대, 도시/건물, 관찰자/작품, 작품(전경)/환경(배경), 과거/미래 등과 같은 가치대립을 공간안에서 분절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구조는 <표 15>과 같이 3측면의 의미범주화를 가능케하고 있다.

<표 15> 의미 범주화

의미범주	관계구조	의도성(효과)
사회적	전통 / 현대	사회성
미학적	복잡성 / 일관성(단순성)	역동성
기능적	형태 / 기능	유연성(상호변화 가능성)

3범주는 공간적 담론의 조건들로서 상호대립되는 또한 상호 이질적인 주제들과의 관계속에서 공간텍스트를 구조화하게 된다. 이러한 범주에 기초하여 계열체적 관계와 통합체적 관계체계들을 분절시키고 결합시킴으로써 의미분석을 진행하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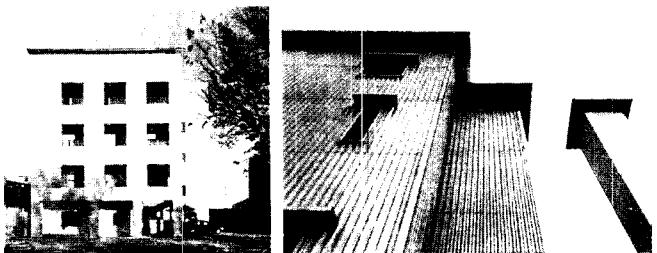
1) 사회적 측면 : 전통/현대 대립구조의 활용

① 계열체적 관계 paradigmatic re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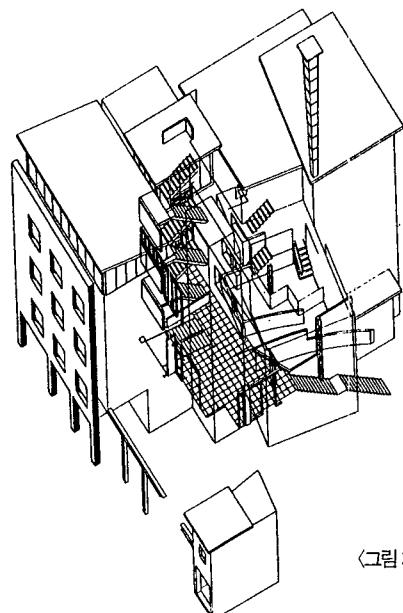
건축가는 전체적인 공간적 텍스트에 내재된 사회적 패러다임, 건축적 이데올로기를 역사의식의 반영체, 사회적 작용력 또는 사회문화적 산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역사의 흡수와 반영 그리고 그 시대의 가치관과 미학적 가치를 수용하고 미래를 제시하

81) A. J. Greimas, 1990, p.154 ; M. Krampen, 1991, p.245.

82) 대상환경: 갤러리 현대(서울), 건축설계: 배병길, 지역. 지구 : 일반주거 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제4종 미관지구, 고도지구, 규모: 지하1층과 지상4층, 분석을 위한 자료는 플러스 95년 12월호, 월간인테리어 96년 1월호, 건축가 96년 12월호에 게재되었던 시각자료와 건축가의 글을 참고하였으며, 연구자의 직접적인 공간경험과 관찰분석, 사진촬영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갤러리 현대를 H 갤러리로 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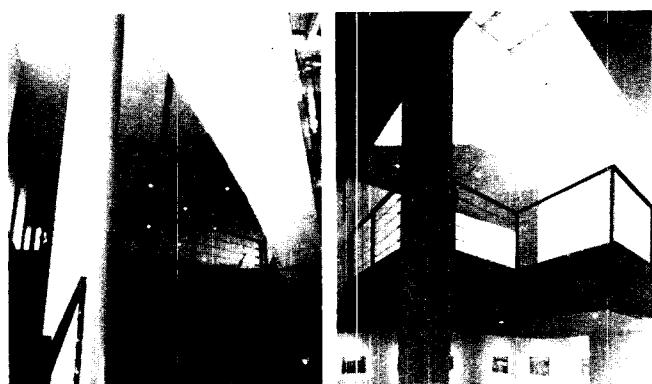
<그림 1> 전면부 시각모듈의 알루미늄 패널(레너베이션), 후면부 알루미늄 골판(신축)
<그림 2> 태면 상부로 건물 마스에 지붕을 써움



<그림 3> 갤러리 건물의 예소노마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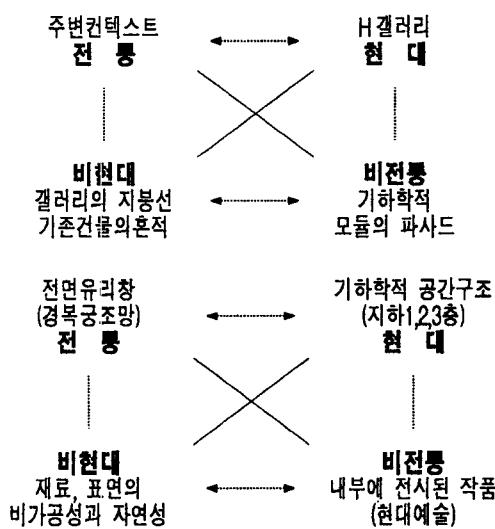
<그림 4> 건물 측면의 기둥과 전통기록
<그림 5> 시각 프레임의 유리창을 통해 주변 경관(경복궁)을 끌어들임



<그림 6> 지하1층과 1층의 연결구조
<그림 7> 2층과 3층이 하나의 공간으로 지각, 자연광과 인공광이 결합됨

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의미 전달체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의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황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반영되었다. 주변컨텍스트는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구총독부), 전통기옥 등 보존과 해체, 증축과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진화적 국면과 그 시대의 사회적 코드를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서 건축계획자체에 이러한 상황인식이 선행되어져 있다. 공간텍스트를 전통/현대 의미대립 형식으로 대치시킨 뒤 앞에서 제안되어진 기호 4각형의 기호학적 모형에 배치하여 의미생성행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표 16>는 변별적 차질, 특징들이 유지하는 의미의 위상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표 16> 전통/현대의 위상적 관계체계(외부와 내부공간)



전통/현대의 상위대립항은 비현대/비전통이라는 하위반대항과 함축관계에 있다. 주변컨텍스트는 역사성과 사회적 코드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파사드의 기하학적 모듈과 금속성의 재질이 갖는 현대성은 서로 대립적 관계 구조이며, 전면의 가벽은 전통과 미래의 경계 즉 현재를 암시하는 인식의 벽으로서 건축가 스스로는 이웃한 구총독부의 철거로 이어지는 장소성에 대한 시간적 여과장치 즉, 역사성의 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갤러리의 지붕선과 주변 전통한옥의 처마끝은 재질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으나 그 형식적 관계는 동일하다. 전통/현대의 가치대립을 내부 공간에서 찾아보면 각종에 있는 전면 유리창은 경복궁을 조망하게 되어 있으며, 그 와 반대로 내부공간에는 현대 예술작품이 전시되게 된다. 따라서 관찰자는 동시에 의미의 대립구조를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재료와 표면이 갖는 물질적 본성을 강조하여 비가공성과 자연성을 살린 반면, 그 공간적 구조와 디테일은 기하학적이고 하이테크하다. 이와 같이 전통/현대의 분절을 통해 발현된 역사성, 사회성의 의미는 표현면, 즉 조형적 특징과 차이의 대조적인 관계에 의한 배치와 치환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으로 건축의 전체형태는 결과적으로 건축적, 사회적 패러다임,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어 드러난 실질들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통합체적 관계 syntagmatic relations

전통/현대 대립이 갖는 통합체적 관계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구체적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형적 대조에 의해 분절되어진다.

이러한 내용면의 형식이 현실화 되어서 드러난 표현면은 전체적 공간텍스트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의미효과는 건축환경이 갖는 역사성, 사회성의 인식이며 동시에 조형적 대조는 문화벨트내에서의 식별성과 장소적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게 된다.

<표 17> 표현면/내용면의 분절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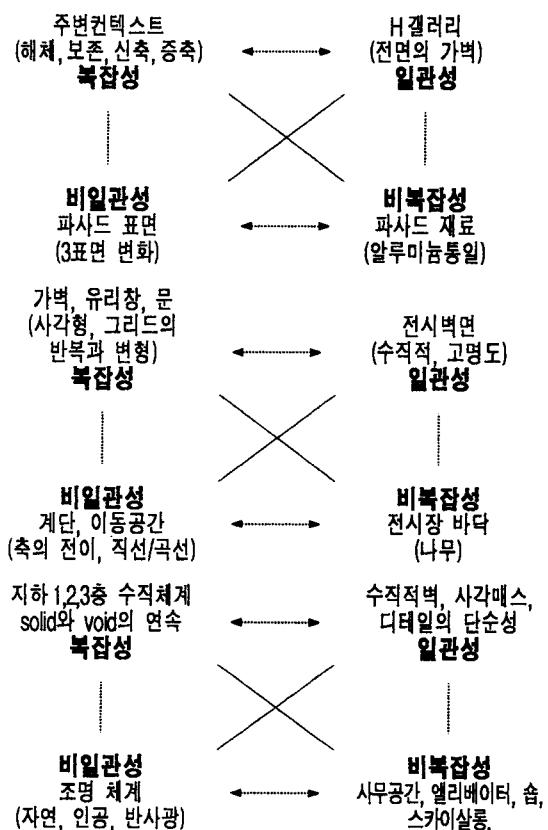
	컨텍스트	전통적인 / 하이테크한
표현면 the plane of expression	파사드	무작위적인 / 규칙적인 흡수하는 / 반사하는 복잡한 / 단순한 자연적인 / 인공적인
	재료	나무 / 철, 콘크리트, 알루미늄
	구조	경복궁한 내부에 전시된 전면유리창 / 현대미술작품
	색상	다양한 / 단일한(무채색톤)
내용면 the plane of content		전통 / 현대

2) 미학적, 기능적 측면 : 복잡성/일관성(단순성)의 의미 대립구조 활용

① 계열체적 관계

갤러리는 관찰자/환경, 관찰자/작품, 작품/환경 등의 관계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즉 미학적, 기능적 측면을 지원하는

<표 18> 복잡성/일관성의 분절구조



공간 형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H 갤러리가 갖는 공간형식은 동시 대의 미학적 가치의 실현과 동시에 이동공간체계로 구성되는 내부 공간적 구조에 지각적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점이다. 또한 기능적으로 환경이전에 공간의 주체로서의 인간뿐만이 아닌 객체로서의 작품, 즉 현대예술의 양상과 형식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미학적 측면은 갤러리내에서의 인간의 행위 즉 움직임과 이동에 관한 문제로서 지각자의 연속적 경험을 유지하고 경로탐색 wayfinding에 있어 자율적인 이동행로를 스스로 설정함과 동시에 지각적 주의와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는 시각적 단서들을 제공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수직적 공간체계로 지하 1, 2, 3층 전체가 서로 관통되어진 유기적 공간구조를 갖고 있으며, 복잡성/일관성이 동시에 한 공간 안에서 분절되고 있다. 둘째, 기능적인 측면으로 현대예술이 갖는 특성의 인식이다. 탈경계, 탈영역, 고도기술과 결합된 전자시대의 예술과 다매체적 혼성예술 hybridart은 전시공간구조와 프로그램을 변화시키고 있다. 작품, 관찰자, 작가가 상호 반응하는 관계의 장, 체험의 장소로 대체되고 있는 경향의 반영이다. 특히 공간구조는 형태/기능의 상호변화가능성 interchangeability과 미래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탈프로그램 disprogram, 교차프로그램 crossprogram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형식의 유연성, 개방성에 대한 표현의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미학적, 기능적 측면의 의미 범주는 공간자체를 커뮤니케이션의 장소, 의미전달체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복잡성/일관성, 형태/기능을 공간안에서 분절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분절구조속에서 발견되는 주제적 공간형식은 변화와 그 것을 조절하고 전체적으로 조직화 하기 위한 일관된 규칙, 즉 재료나 조형적 형상의 통일과 대조를 도입하고 있는 점이다. 반복되는 동위소들에 의해 관찰자는 의미의 가치체계를 발견하게 되고 역동적인 지각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② 통합체적 관계

갤러리 전체형상에서 복잡성/일관성, 형태/기능의 대립이 갖는 통합체적 관계는 다음과 같은 명시적 관계로 분절되어진다.

〈표 19〉 표현면/내용면의 분절구조

표현면	컨텍스트 변화하는 / 정지된 (해체, 보존, 신축, 증축) (전면가벽)
	표면 표면의 다양성 / 재료의 통일 (수직, 수평, 면) (알루미늄)
	빛 교차되는 / 단일한 밝은 / 그늘진
이동체계	비직각(축의 전이) / 직각 곡선 / 직선
개 구 부	크기의 다양성 / 사각형과 그리드
내용면	복잡성 / 일관성

갤러리의 전체형태, 공간구조, 색상, 조명, 표면, 재질이 갖는 조형적 대조와 위상적 배치에 의해 의미가 생성되고 그 효과, 즉 커뮤니케이션과 역동적 지각 체험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미학적, 기능적 측면의 의미 범주는 공간전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가치체계로 가시적 현상으로 드러난 실질들을 분절함으로써 파악이 가능하였으며 갤러리가 갖는 내용과 표현적 차

원은 분리된 것이 아닌 통합된 전체로서 기호의 양측면, 즉 기의와 기표체계이다. 이상의 내용은 기호학적 분석방법에 기초한 것으로 공간언어를 사회언어로, 사회언어를 공간, 조형언어로 상호대치시킴으로써 가능하였으며, 의미는 커뮤니케이션 체계에서 전달되어지는 메세지이며 환경은 동시에 의미의 운반체임을 알 수 있었다.

6. 결 론

공간기호학은 공간적 텍스트를 읽는 하나의 작업으로 그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사물에는 반드시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다.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를 기호라고 할 때 예술로서 환경은 그 종류와 영역을 초월하여 인간에게 어떠한 경험과 행태적, 인지적, 환경적 효과를 지원하기 위해 디자이너에 의해 의도, 계획되어진 의미의 복합체임과 동시에 기호체계이다. 또한 도시·건축환경은 디자이너, 건축가의 작품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인 신념과 사건의 기록으로서 과거/미래, 인간/환경, 인간/사회, 인간/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의미 전달체계라 할 수 있다.

환경을 지각한다는 것은 기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 생산 활동 그 자체이다. 바로 환경은 공간적형식과 사회적 코드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여러 상황과 조건들이 개입되는 불확정적인 구조로 우연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디자인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공간적 형식과 가치체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디자이너 스스로 이 시대의 가치체계, 다양한 요구, 복잡한 삶의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며 물리적인 실체, 조형적 특징과 패턴만이 아닌 그 실질 내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구조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현대인들은 물질, 관념을 통해 모든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닌 기호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 공간안에서 살고 경험한다는 것 그 자체는 기호를 소비, 사용, 읽고 있는 것이며 현대인들은 바로 기호의 소비자, 사용자, 독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에 있어 잊어버린 사회적 코드와,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의미작용을 불러 일울킬 수 있는 특별한 메커니즘, 새로운 조형언어들을 실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포스트모던 기호학, 사회기호학, 일상기호학 등 이제 기호학은 일상적인 삶속에서 그 학문적 가치를 발휘하고 있으며 도시·건축환경은 물론 모든 조형예술분야, 문화현상에 대한 의미를 분석, 규명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의미의 복잡성, 다양성에 대응해서 이를 규명하고 그 의미효과는 발견해 낼 수 있는 분석의 관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으며, 그 결과 제안되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기호학적 담론은 인간-환경, 주체-객체의 관계성, 즉 프라嬖러메틱체계를 기저로 했을 때 가능하며 가치체계를 세우기 위한 인식론적인 구조와 그 관계성, 효과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담론의 구조와 형식을 기호학 연구에 취함으로서 의미파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관계구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도시·건축환경은 사회문화의 반영체로서 그 의미파악을 위

해서는 사회중심적 관점을 갖고 그 공간형식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코드에 기초해서 분석하여야 한다.

셋째, 공간기호학에서 환경의미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실질이 아닌 그 이면에 내재되 있는 건축적, 사회적 패러다임이 상호 결합되어, 즉 그 형식들이 결합되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통합체적 관계체계가 계열체적 관계체계와 결합되었을 때 그 의미가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호학 분석에서 중요한 관심은 그 심층적, 내연성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소쉬르, 엘름슬레우에 이은 그레마스 기호학 이론이 환경의미의 분석적 메커니즘으로 적합하였으며, 좀 더 다학문적인 관점들, 즉 환경미학, 행태과학, 인류학, 생태학, 사회학 등과 결합되면 더욱더 체계적인 분석 모형과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다섯째, 앞서 제안되어진 접근방법에 기초해서 H 갤러리를 분석한 결과 그 의미파악의 구체성과 의미생성행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으며 기호학적 접근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호학적 분석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보편성, 객관성의 확보인데, 이는 서로 다른 가치설정과 의미론적 대립에서 출발하는 이질적인 담론들간의 대화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기호분석은 디자이너들의 의미 형성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더욱더 창조적, 객관적 해석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술과 인문과학의 학문성을 동시에 가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서울: 인간사랑, 1989.
2. 한국기호학회, 문화와 기호 . 기호학 연구 1집,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3. _____, 현대사회와 기호, 기호학연구 2집,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4. 한국철학사상 연구회, 철학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동녘, 1980.
5. Baudrillard, Jean, 기호의 정치 경제학 비판, 이규현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6. _____, 시뮬라시옹, 하태환 역, 서울: 민음사, 1992.
7. Floch, Jean-Marie, 조형기호학, 박인철 역, 서울: 한길사, 1994.
8. Macdonell, D., 담론이란 무엇인가, 임상훈 역,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2.
9. Parret, H., 현대기호학의 흐름, 김성도 역, 서울: 이론과 실천, 1995.
10. Saussure, F.de, 일반언어학 강의, 대우학술총서 . 번역 31, 최승언 역, 서울: 민음사, 1990.
11. Zima, Peter, 이데올로기와 이론, 허창문 .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12. Bruce, V. & Green, P.R., Visual Perception Physiology, Psychology and Ecology, London: Lawrence Erlbaum Publishers, 1985.
13. Dufrenne, Mikel Ed., Main Trends in Aesthetics and the Sciences of Art, N.Y.: Hodder & Stoughton Publishers, 1979.
14. Gottdiener, M., Postmodern Semiotics: Material Culture and the Forms of Postmodern Life,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1995.
15. Greimas, Algirdas Julien, Narrative Semiotics and Cognitive Discourse, London : Pinter Publishers, 1990.
16. Herbert, Lynden, A New Language for Environmental Design, N.Y. : New York Univ. Press, 1972.
17. Hervey, Sádor, Semiotic Perspectiv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82.
18. Hodge, R., Kress, G., Social Semiotics, N.Y.: Cornell Univ. Press, 1988.
19. Lang, Jon,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N.Y. : VNR Co., 1987.
20. Nasar, J.L.Ed., Environmental Aesthetics, N.Y.: Cambridge Univ. Press, 1988.
21. Teymur, Necdet, Environmental Discourse, London : Blackwell Press, 1982.
22. Thomsen, Christian W., Visionary Architecture, Munich & N.Y.: Prestel-Verlag, 1994.
23. Zube, E.H. & Moore G.T. Ed., Advance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Vol.3. N.Y.: Plenum Press 1991.
24. 김복영, 회화적 표상에 있어서 기호와 행위의 접근가능성 : N. Goodman 기호론의 발전적 고찰, 숭실대학교 박사청구논문, 1987.

〈접수 : 1997. 2. 3〉